

장성역~영천로 2km 건물외벽·간판 정비

테마있는 디자인 거리 탈바꿈

도시경쟁력 향상·상권활성화 기대

장성군 시가지가 세련되고 테마있는 간판디자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선정, 장성역 주변과 영천로를 중심으로 2km 일원에 친환경 전원도시 이미지를 담은 건물외벽 및 간판 정비를 추진해 왔다. 군은 우선적으로 70여개 업체의 간

판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새로 조성된 간판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해 색상·크기·모양·글자체 등을 세심하게 배려했으며,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진자연적인 테마거리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건물 외벽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는 간판들이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해 상가 이미지를

살리면서 도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불법 간판 및 유동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 및 개선했으며,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업소의 전기 사용량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휴·폐업 업소 등을 제외한 관내 322개 업소를 대상으로 홍길동 캐릭터와 편백나무·백양사 낙엽·방울샘을 주제로 A·B·C 3개 구간으로 설정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20~30년생 소나무

50여그루 무단벌목

장성군 자체조사

장성군이 최근 삼서면 유령리 일찌문중 소유 야산에서 벌어진 무단벌목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조사에 나섰다. 군은 부지 1646㎡(498평)에서 20~30년생 소나무·참나무 등 50그루가 무단벌목된 것으로 확인하고 최근 행위자 임모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군은 정비 기사 등 관계자 조사를 마친 후 불법이 확인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임씨 문중 소유 산 관리자인 임씨는 사과밭(1만 3220㎡) 농사에 필요한 물줄기를 내기 위해 산길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죽제품 팔러 죽물시장 가요

죽물시장은 200년 넘게 명맥을 이어나온 전국 유일의 '대나무 5일장'이었다.

담양군 주민들이 1일 '제14회 담양 대나무축제' 일환으로 죽물시장으로 죽(竹) 제품을 팔러가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담양천변을 가득 메웠던 죽물시장은 200년 넘게 명맥을 이어나온 전국 유일의 '대나무 5일장'이었다. <담양군 제공>

연분홍 철쭉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5일 화순 '백아산 철쭉제'

'제15회 백아산 철쭉제'가 오는 5일 화순군 북면 백아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다. 백아산 철쭉제는 5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풍물 한마당, 통일장승 세우기, 등산대회, 초대가수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또한 산죽술 시음회와 담글술 전시회, 북소리 전통 체험 등 부대행사와 지역특산물 판매장터도 열린다. 특히 백아산 명품 한우 원가 판매 및 시식회가 마련돼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이 밖에 갈수록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통일 장승 세우기 및 통일풍선 날리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철쭉제에 앞서 4일에는 백아산 정상 마당바위 옆 제단에서 6·25 희생자 위령제가 열린다. 축제를 준비한 문금식 북면 청년회장은 "백아산에 자생하는 희귀한 고산 철쭉의 아름다움은 물론 백아산이 지닌 역사성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축제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자 백아산 철쭉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안동천 북면장은 "백아산 철쭉제를 성황리 개최해 화순의 명산 백아산을 널리 알리고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아산 철쭉제는 지난 1998년부터 11년간 백아산 마당바위 옆 제단에서 위령제를 진행해오다가 2008년부터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으로 자리를 옮겨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리 홍보하고자 백아산 철쭉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안동천 북면장은 "백아산 철쭉제를 성황리 개최해 화순의 명산 백아산을 널리 알리고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아산 철쭉제는 지난 1998년부터 11년간 백아산 마당바위 옆 제단에서 위령제를 진행해오다가 2008년부터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으로 자리를 옮겨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KTX 타고 담양 관광 오세요

군-코레일 업무협약

담양군과 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이대수)는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군은 코레일을 이용해 담양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주요 유류관광지의 입장료 할인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보다 재미있고 편안한 '담양 관광'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코레일 광주본부는 KTX와 일 시관광객의 상품 등 '관광 담양' 상품 개발·운영과 함께 전국 코레일 지점을 통해 축제는 물론 '대승탑은 생대 도시 담양'을 홍보하는 등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소 KTX를 이용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담양을 방문, '관광 담양'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화 됐을 뿐만 아니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형식 군수가 추구하는 '녹색문화 웰빙관광 정책'과 이대수 본부장이 이끄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가 만나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공산 119지역대 청사 개소

나주소방서

나주소방서(서장 신봉수)는 1일 공산 119지역대(공산로 95-11) 신청사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덕중 나주시의장을 비롯한 김옥기 도의원, 각 기관 단체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마을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산 119지역대 청사는 부지 1634㎡에 4억3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212㎡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됐다. 신봉수 나주소방서장은 "공산 119지역대 개소식에 따라 나주 서남부 지역의 안전 지킴이로서 지역의 재난 재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on@

전 북

5월 전북은 축제의 달

전주 한지문화·군산 풍당보리·김제 지평선 등 10개 잇따라

5월을 맞아 전북 도내에서 철쭉제와 보리밭 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국제영화제와 남원 바래봉 철쭉제,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비롯해 전주 한지문화축제·남원 봉화산 철쭉제·정읍시 만석보 배물평 유채꽃 축제 등 10여개 축제가 펼쳐진다. <표 참조> △전주 한지문화축제=3일부터 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완주군 대승한지마을에서 열린다. '전주한지 물결, 한류와 함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지의 대중·산업·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과 공연,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3일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전주한지 국제패션쇼, 완주군 창포마을 할머니 다듬이 공연 등이 펼쳐진다. 경기전 앞 주차장에 마련된 산업관에는 24개 한지관련 업체가 참여, 한지의 과거·현재·미래를 엿볼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한지 관련 제품들을 전시 판매한다. 완주군 대승한지마을에서는 전통한지 제조체험(다듬이 빚기·다듬기 등)이 열린다. △철쭉·유채꽃·봄꽃들의 향연=도내 대표적인 철쭉 근라지인 남원시 운봉면 바래봉과 남원시 아영면 봉화산을 찾으면 분홍빛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바래봉 철쭉제는 5일 터울림 농악을 시작으로 철쭉 제례, 철쭉가요제, 풍바 공연,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체험행사는 농촌 체험행사, 허브 족욕체험, 풍물·곤충 만들기, 허브를 이용한 방향제·비누·차향 만들기 등이 열린다. 이삭이 익어가는 청보리밭도 빠뜨릴 수 없는 볼품경이다. 군산 풍당보리축제와 김제 지평선

들기, 한지들·창호지 체험, 합죽선 제작 시연·전통놀이(타끈 팽이 돌리기 넘뛰기), 와일드 푸드(다나무로 만든 식혜와 청주 등) 판매 등 행사가 펼쳐진다. △철쭉·유채꽃·봄꽃들의 향연=도내 대표적인 철쭉 근라지인 남원시 운봉면 바래봉과 남원시 아영면 봉화산을 찾으면 분홍빛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바래봉 철쭉제는 5일 터울림 농악을 시작으로 철쭉 제례, 철쭉가요제, 풍바 공연,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체험행사는 농촌 체험행사, 허브 족욕체험, 풍물·곤충 만들기, 허브를 이용한 방향제·비누·차향 만들기 등이 열린다. 이삭이 익어가는 청보리밭도 빠뜨릴 수 없는 볼품경이다. 군산 풍당보리축제와 김제 지평선

기관	행사명	날짜	장소
전주	전주국제영화제	4.26~5.4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및 영화의 거리
"	전주한지문화축제	5.3~5.6	한옥마을 일원
남원	남원 바래봉 철쭉제	4.27~5.28	운봉 허브밸리
"	봉화산 철쭉제	5.12	이영면 봉화산일원
군산	군산풍당보리축제	5.2~5.6	미성동 주민센터 일원
부안	부안보리밭축제	5.4~5.6	부안스포츠파크 일원
김제	지평선 황금보리추억의 보리밭축제	5.4~5.6	진봉면 망서리 일원
"	백골제 이리랑축제	5.5	백골제 일원
진안	원연정마을 꽃잔디 축제	5.4~5.6	진안읍 원연정마을
정읍	만석보 배물평 유채꽃 축제	5.5~5.13	이평면 만석보 일원
"	황토현동화농민혁명 기념제	5.11~5.13	황토현 전적지
고창	청보리밭 축제	4.21~5.13	공음면 혁일농장

황금보리 추어의 보리밭축제·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 원연정마을 꽃잔디축제와 정읍시 만석보 배물평 유채꽃 축제도 함께 열린다. 올해 처음 부안 스포츠 파크에서 열리는 '부안 마실축제'는 산해진미 구이마당, 갯벌 조개게기 체험, 마실길 걷기 대회 등 7종 49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순창군 전통자수 명맥 잇기 나섰다

2013년까지 4억 들여 자수기능전수사업 추진

1940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국내 최대 자수(刺繡) 생산지로 명성을 날린 순창군이 전통자수 명맥 잇기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향토 핵심자원 시범사업'에 공모해 '순창자수 기능전수사업'이 선정돼 오는 2013년까지 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기능전수사업 대상자를 지난 3월까지

신청받아 지난 4월 장류박물관 별관에 '순창자수 문화센터'를 열고 전시실과 교육장, 연구실, 사무실 등의 공간을 마련했다. 현재 순창자수 문화센터는 수강생 50여 명이 박혜숙(71)씨와 제영옥(57)씨 등 2명의 강사로부터 손자수를 배우고 있다. <사진> 수강생들은 초급반·중급반·주말반 등으로 나눠 주5회 매일 3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제영옥 강사를 비롯한 수강생들은 오는 7일 국립박물관에서 보석함과 명함집 등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LNG 11월 공급

단독주택은 내년 하반기

남원시에 천연도시가스(LNG)가 오는 11월께 공급될 예정이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연간 1만5600t을 공급할 계획으로 주배관 공사(곡성군 옥과면~송동면 장곡리 32.63km)를 2011년도에 완료했다. 시내 공급배관은 전북도시가스(주)에서 지난해까지 14구간 11.196km를 완료했고, 올해 19구간 7.21km를

추가로 매설할 계획이다. 남원과 옥과 정압관리소 설치공사가 오는 10월말 완공되면 11월께부터 남원시내 주요 공급배관이 매설된 공동주택 아파트부터 LNG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2013년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도시가스(주)는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시내 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중에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1000원 목욕탕' 장애인도 사용 가능

전북도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하는 저렴한 가격의 '1000원 목욕탕'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전북도는 최근 시·군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조성키로

한 54개소의 '1000원 목욕탕'에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이용토록 시설을 보완키로 했다. 도내 52개소의 장애인 전용시설에는 대부분 목욕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시설에

는 목욕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도는 '1000원 목욕탕'에 목욕 참여와 자동문, 핸드레일, 점자블록, 문턱 제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9개 시·군에 12개소의 '1000원 목욕탕'(130㎡ 규모)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전주 승마장, 소형마 이름 공모

전주 승마장은 오는 11일까지 학생들의 승마체험을 위해 새로 구입한 소형마(포니종) 3마리의 이름을 공모한다. 마필 이름 지어주기 공모는 전주 승마장 다음카페(cafe.daum.net/jsshorse)에 응모할 수 있다. 승마장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고객이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2개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덕규 이사장은 "매년 말을 구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승마스포츠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063-239-2695)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긴급복지 사업 확대

정읍시는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휴·폐업자를 비롯한 실직자·출소자·노숙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 시행되고, 주거지원에 대한 금융재난 기

준도 기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 100%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한줄 아이템' 공모

김제시는 오는 15일까지 공무원과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줄아이템'(아이디어)을 공모한다. 응모분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슬로시티 ▲문화·체육복지(문화체육시설 확충·여가생활 지원방안) ▲친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내 수산시

장 활성화 방안 등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1차로 시의 '삶의 질' 정책에 반영하고, 전북도·전북발전연구원 등에 정책제안 활동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응모방법은 시 홈페이지(www.gimje.go.kr)로 제출.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신경준 선생 탄생 기념 학술대회 협약

순창군과 전북대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소(소장 고통호)는 1일 여암 신경준(1712~1781) 선생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창출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이

자 실학자인 여암 선생의 천문학과 지리학 등 업적을 학제적으로 검토, 고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담았다. 국제 학술대회는 오는 10월 5일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